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오후 2시에 비대면으로 모입니다.
- 어린이학교 학부모 모임이 오후 3시에 모입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25일(금) 오후 8시에 비대면으로 모입니다. 전체 모임 후에는 방별 모임도 있습니다.
- 다음 주일에배 설교는 임채정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 이번주 금요일부터 공동서신서로 성서일기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별로 전달됩니다.
- 장신대 신학대학원 2학년 ‘교회밖 현장실천’이 25일(금) 오후 4시부터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송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25 호
2021년 6월 2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6월은 우리나라에서 호국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을 기억하는 달이지요. 또한 6월은 우리 민족에게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게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6.25 한국전쟁의 비극이 상기되며 무엇보다 그 아픔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후로 사람이 사는 곳에 전쟁이 없었던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전쟁과 내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죄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의 고통과 위협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본질인 교만과 이기심.. 이것이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등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며 합리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직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반도는 1945년 세계 2차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각각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군정을 했으며 1948년 남과 북에 각각 독립된 정부가 세워지며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내전을 돕던 북한의 최정예부대가 중국의 내전이 끝나고 공산화가 되며 북한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소련에서 지원 받은 무기들로 무장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한 또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국내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내부적으로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갈등하는 사이에 서로 테러를 해서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는 같은 마음으로 싸웠지만 결국 이념의 갈등에서 벌어진 동족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남한 정부는 내부 결속을 위하여 북진 정책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종합되어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의 시대도 이스라엘 민족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뉘지는 분열왕국 시대를 맞게됩니다. 지리적으로 어려웠던 남 유다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북 이스라엘! 불안정한 국내 정세는 강대국에 둘러쌓여 끊임없는 외세의 잦은 침략을 불러들였습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기원전 721년에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 떼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사11:6~9)"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6절 앞부분에 "그 때에는.."이라는 때를 나타내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때는 11장 1~5절에 나타나있는 말씀으로 바로 예수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때에는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즉, 평화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주변 강대국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왕국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나라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로 서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해는 한국전쟁 71주년의 해입니다. 이제 한국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세대의 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두려움과 아픔, 더 나아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잊기 쉽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2021년 세계경제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려웠던 그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념이나 생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입장들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또 다시 아픔을 가져올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내려질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한주간의 말씀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 미가서 6장 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사도행전 21:1-16
 제목 :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10 510 341 325 484 545

1-6 밀레도에서 두로로 가다.
 7-14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가다
 15-16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 1) 관찰: 각 지역에 있을때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바울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로 알고 갔다.
 해석: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일(사역)을 막지 말아야 한다.
 적용: 지도자(교역자, 위원장, 방장 등)에게 힘을 주자.
- 2) 관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
 해석: 바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잘사는 것(쉽고 편안함)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하는 삶을 살았다.
 적용: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자.
- 3) 관찰: 바울은 고난이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해석: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적용: 하나님의 주신 소명(사랑방공동체-코이노니아를 지향)을 위해 노력하자. 주저하지 말자.

나라를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역사를 걸머진 이 땅에 복음을 심어 주시어
 한 많은 민족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번민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병으로 신음하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힘겨워 쓰러지는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구원의 기쁨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주님,
 이 땅에서 핵전쟁의 공포를 없이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남북한의 긴장이 사라지게 하시사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누며 위하며 함께 살고
 다스리는 자가 백성을 겸손히 섬기며 서로 신뢰하는
 평등과 정의의 살롬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감을 위한 기도선집] 중
 도전일 목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민수기 6 : 24-26
44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복회기도

베드로전서 1 : 23
293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미가서 6 : 6 - 8
219 설교자
사랑방
“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49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낙귀 정혜정 / 봉헌위원 : 정혜정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한없는 인자와 성실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자이며 아모스와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두 왕국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후에 미가는 4-5장에서 왕국이 재건되고 포로들이 돌아오며 오실 왕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 약속의 민족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6:8>

우리들의 세상이 회복을 하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미가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졌으며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서로가 무한경쟁을 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은 없이 자신의 이웃을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이로 인해 신뢰는 깨졌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이 때, 우리의 살 길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 하나님과 동행.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관계하는 사람들 서로에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될것입니다. 이를 위해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혜정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5살 코끼리반은 처음으로, 7살 돌고래반은 아주 오랫동안 꾸러기학교 1박 캠프를 했습니다. 자연예배당 안에 텐트 2개를 치고 하룻밤 같이 자며, 일산 아쿠아플라넷 나들이와 불꽃놀이, 피자랑 도넛 만들어 먹기 등 1박2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첫 날 아쿠아플라넷에 가서 신기하고 다양한 바다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학교로 와서 제일 먼저 꾸러기 밭으로 가서 쌈채소를 따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동시에 힘을 모아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가 있는 꾸러기학교는 충분히 색다른 느낌을 주었고 꾸러기들은 신이 나서 텐트 안팎을 넘나들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 후 운동장에서 불꽃놀이를 했어요. 손에 쥘 막대에서 불꽃이 피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새로운 경험이였지요. 어스새 밤은 깊어지고 꾸러기들은 샤워를 한 후 잠옷으로 갈아입고는 베개를 베고 나란히 누워서 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은 말뚱말뚱 눈이 반짝입니다. 선생님의 창작동화를 한참 듣고 발마사지도 한참 받고 자장가를 듣다가 한 명 씩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씩씩하게 잘 자고 맛있는 둘째 날에는 함께 피자와 도넛을 만드느라 무척 바빴지만 직접 만든 피자와 도넛 맛은 엄지 척이었어요.

이렇게 1박 캠프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꾸러기들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틀림없이 마음도 쑥 자랐을 겁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여러 날씨가 있던 한 주였습니다. 오랜만에 계획한 6월 나들이를 앞두고 혹시나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나들이 하기에 좋은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푸라닭, BBQ, BHC, 교촌, 굽네, 호식이두마리, 노랑통닭, 60계치킨.. 이번 에버랜드 나들이의 모듬명입니다. 새로운 놀이기구에 도전하고 뿌듯해하는 어린이들, 아직 키가 조금 모자라 아쉬워하는 어린이들, 어지러운 놀이기구를 연속해서 타다 집에 가는 길엔 혼자 걸기 어려워하던 어린이까지.. 각자 취향에 맞는 모듬에 들어가 10시간이 부족하도록 최선을 다해 놀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어머니 선생님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동안 가정에서 폭 신 어린이들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다시 등교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6월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힘내서 지내겠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이번 주 멋쟁이학교에서는 학년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외부숙소를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학교에 잠자리를 꾸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서로 갈 일이 없던 곳을 사용하기도 하고, 텐트를 치기도 하는 등 변화를 주어 생활했습니다. 각각의 재미있는 여행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함께 하는 추억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만끽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것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한 멋쟁이들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쌓인 여독을 잘 풀고 오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기도와 협력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따뜻한 시선

저는 귀여운 꾸러기학교 친구들과 함께 주중을 지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귀여운 꾸러기들과 같이 지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평소 선생님으로서 친구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알아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게 가끔 오히려 선부르게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단정 짓기도 합니다. 학교생활 안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과 선생님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이 상충하고, 이런 말씨름을 하면 때로는 쉽게 판단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아이와 다시 대화를 하거나 사과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 된다 등 사람의 생각은 참 다양해서 생각을 모으기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같이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서로를 보통 식구 또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밀접한 관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이해관계가 다른 각자 걸어온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한 공동체로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방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이 뜻하셔서 모은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평가하고, 각자의 생각을 펼치는데 그건 한 공동체가 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겐 생각보다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랑방공동체 식구들은 서로를 많이 사랑해서 잘 배려하고, 식구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주위를 감격 있는 공동체생활로 만듭니다. 서로 실수하고, 오래 지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 우리의 주위가 진정한 하늘나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동체식구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삶을 앞에서 먼저 보여주신 공동체 어른들과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늘나라의 삶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대하 36:22-23

인도 : 최기찬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 G7 공동성명 주요 합의 내용

주요 7개국은 내년에 걸쳐 코로나19백신 10억회분 제공한다.

중국에 신장 자치구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 촉구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노력한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촌공동체(예수마음교회)>

1) 교회 가족들이 헌신하는 MCC, KAC, 평화저널 등 메노나이트 평화 영성사역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2) 교회 공동체 내 젊은 청년들이 분열과 갈등, 미래의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3) 올해 안으로 현역에서 퇴직하고 인생 3막을 시작려는 1세대 리더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균형있는 믿음생활, 건강하고 활기찬 아름다운 노년 생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사랑방공동체 학교 여행을 위해

2)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백신접종이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되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공동체학교가 몹시 바쁜 한 여행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학교를 숙소로 하고, 소그룹으로 외출을 다녀왔습니다.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큰 어려움 없이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식구들도 계속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중입니다. 백신 맞은 후 후유증이 있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옵니다. 모두 통증을 이기고 항체가 하루 속히 형성되어서, 자유롭게 모두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토요일에는 방별로 지킴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예배준비를 함께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하신 무림방 어르신들은 현장예배에 부담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사랑방 온 식구가 다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 정재훈 목사 >